

# 鑑 定 書

022346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대학생위원회(준)(2002.3)

##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의 기관지,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창간호임.

나) 내용 분석:

(1) 본 기관지는 정치적 내용, 조직적 내용, 이론적 내용, 서울대 학위(준) 소식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기관지에서 정치적 내용은 3월 교육정세에 대한 전망과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그 논의의 초점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투쟁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2) NO 3-2, <학습제언>의 내용은 맑스주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먼저 이 부분에서는 ‘당’이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이자 “계급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마르크스의 당 이론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 그람시 등 사회주의혁명가들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고 있음.

<예시>

“과학적 사회주의가 맑스로부터 시작했듯이, 당 이론 역시 기본적인 원칙들은

맑스가 세워 놓았다. 계급투쟁과 계급에 있어서, 당은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이자 계급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20면)

(3) 구체적으로, 위 내용에서는 레닌의 대표적 저서인 『무엇을 할 것인가』의 학습을 독려하고 있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은 혁명조직의 중요성과 대중운동에 대한 전위당의 역할을 강조한 공산당 조직론의 고전임.

<예시>

“특히 레닌의 당 이론의 핵심을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직접 『무엇을 할 것인가』 전체를 꼭 읽어보길 권한다”(20면)

(4) 또한 이 부분에서는 그람시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광역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변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 내기 위한 것임. 즉, 여기에서의 그람시 당 이론 학습 취지는 혁명가로서의 그람시의 당 이론 학습을 통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진보적 대중정당’을 통한 변혁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예시>

“그람시의 당 이론은 이런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지배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형성하고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견고하게 틀어쥐고 있는 것을 분석해 내고 변혁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전략을 전개해 낸다...특히 새로운 유형의 당으로서 ‘대중정당’이라는 개념은...진보적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획득해야 할 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20면)

### 3. 總 評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의 기관지,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창간호임.

본 기관지에 실린 <학습제언>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가들로서, 당 이론에 관한 고전적 논의들을 제공한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그람시 등의 당 이론 학습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용공적 문건으로 판단됨.

2002年 4 月 17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문 건 명 : 정치학교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천주체양성-

나. 작 성 자 : 황 광 우 외

다. 발행처(일) :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2000. 9)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작한 《2000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정치학교 교재》로 이른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천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수편의 강의 프로그램과 강의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황광우의 글은 맑스주의로의 한국사회변혁과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고 있는 글이다.

## 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해(황광우)의 문제점

첫째, 러시아혁명의 볼셰비키 등 사회주의노선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노선을 정당화하며 선전하는 것이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 두 청년이 공산주의운동의 개시를 선언한 해가 1848년 이었던 것도, 결코 프랑스의 2월 혁명과 무관하지 않았으리라...중략... 우리는 지난 80년대 혁명의 교과서를 러시아혁명에서 구하였지만,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을 추동한 부르조아지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러시아혁명을 추동한 볼셰비키의 사회주의를 우리는 애호하였지만, 마르크스의 꼬문운동이나 레닌의 공산주의운동이나, 사실은 그 모든 역사적 뿌리가 1789년 프랑스혁명에 기원하고 있었음을 불혹의 나이에야 알게 되다니...”(48면)

둘째, 여순반란사건, 제주4.3폭동 등 해방직후 좌익분자 주도의 무장폭동과 더  
나가 북한공산당국의 남침전쟁인 한국전쟁이 자랑스럽다고 미화찬양하고 있다.  
이는 좌익분자의 폭력투쟁 및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참으로 우리의 현대사는 자랑스럽다... 중략... 해방후 대구10월 사태와 호남의 추수폭  
동이며,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제주동봉기 이어지는 한국전쟁, 1940년의 학생의거, 1979년  
부산마산사태와 19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의 6월 대항쟁과 1996년 노동자 총파업,  
우리의 현대사를 가장 정확히 표현해주는 한 단어를 찾으려면 그것은 <파란만장하다>라는  
것이다...”(49면)

셋째, 자본주의사회를 왜곡비방하고 한국사회를 ‘더러운 남한 땅’으로 매도하며,  
공동체문화 및 평등세상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의 ‘평등세상’이란 이글의 전  
체적 논조로 보아 사회주의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국 위 내용은  
한국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장악할 것인지, 그  
리하여 우리는 이 더러운 남한땅을 어떻게 평등한 세상으로 일구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자 당부드린다 ”(50면)

“ 자본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탐욕을 자극, 끝없이 팽창시키면서, 모든 인간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폐습에 저항하여 인간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57면)

넷째, ‘민주노동당 강령해설’에서 “미군철폐,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철거,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노선과 일치하  
는 것으로 결국 북한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미군을 철수시키고 ,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미국  
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고 남한의 민중적 개혁을 추진할수 없는 것이며, 남북통일도 이루어  
낼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이땅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중략...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기구를 해체하겠습니다..."(53-54면)

### 3. 總 評

이 문건중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해'(황광우)는 △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노선을 정당화하고 △ 좌익분자의 무장폭동과 한국전쟁을 정당화하며 △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노선과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중 황광우의 글은 용공성(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 年 4 月 12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나. 作 成 者 : 불명

다. 發 行 處(日) : 불명 (내용상, 2000년의 시점)

##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라는 제목하의 내용이다. 위의 대상에서 언급한바, 작성자와 발행처는 불명이다. 그러나 언급된 문건의 내용에 의거할 때, 김대중대통령 시기인 2000년의 시점에서 창당을 전제하여 출발했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정권 하의 한국 정치체제의 골간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순한 비판에 그치는 내용이 아니다. 기본적인 전제로서 원론적인 관점이긴 하나 자본주의중심 한국의 김대중정권의 정치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共產主義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를 중심 한국정치체제를 '근본적 모순'의 상태로 규정하며, 전체는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의 체제 자체를 변혁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며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 나. 세부분석

1)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정당의 추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정치체제의 골간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한국사회 소외계층의 지위를 신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서술하고 있다. 원론적인 관점이나, 자본주의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긍정적인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다. 내용의 시작 자체는 문제점이 없다.

p.1의 <질문 1. 민주노동당 활동.....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의 제목하의 내용 전체 (구체적으로 p.1 상단의 첫째 항의 내용 전체.)

2)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외형상 억압받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정당의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의 잘못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 모순의 혁파'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pp. 2-3의 <질문2, '민주노동당'은 자칫하다..... 것 아닙니까?>의 목차하의 내용 전체. 구체적으로 5-8행 : "진보정당의 개량화(자본주의를 극복하려 하지않고, 소극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를 좀 좋은 자본주의로 만들면 노동자가 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될 것이 두려워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소심한 태도입니다."의 내용.

3) 구체적인 시기 구분없이 한국의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지칭하면서, 그 자체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김대중정부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 자체는 자본주의 위기이며, 공산주의의 몰락과는 관계없이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신자유주의로 위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자체의 부정을 전제하는 투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정치체제에 대한 계급모순 관점의 근본적인 부정이다.

pp.3-5의 <질문 3. 또 위기가 온다고 .....무엇입니까?/ 질문4.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 대안은 무엇입니까?>의 내용 전체.

4) '민주노동당'의 조직 형성과 그것의 활동과 관련 조직의 목적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이른바 외형적 측면에서 진보와 민중의 해방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알게 해준다.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투쟁의 활성화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pp.5-6의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해방을 쟁취합시다.>의 내용 전체.



### 3. 總 評

작성자와 발행처 불명의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라는 제목하의 내용을 분석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작성자와 발행처는 불명이다. 그러나 언급된 문건의 내용에 의거할 때, 김대중대통령 시기인 2000년의 시점에서 創黨을 전제하여 출발했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단체의 창당의 목적과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資本主義를 중심 한국정치체제와 세계정치경제의 중심체제를, 공산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투쟁으로 변혁 실천해야할 근본적 정치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서 자본주의 자체는 '근본적 모순'의 상태로 규정하며, 전체는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의 체제 자체를 변혁하자는 내용이다.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외형상 억압받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실상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단체 지향의 정당의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의 잘못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중심의 한국사회의 변혁이 목표인 문건이다.

전체는 PDR과 관점의 공산주의 사회추구의 <용공>의 내용인 문건이다.

2003 年 5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1. 對 象**

가. 文 件 名 : “ 노동자와 통일 6호 ”

나. 作 成 者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총 홈페이지 tongil. nodong. org ( 2002. 5. )

**2. 分 析****가. 概 觀**

본 문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통일위원회에서 발행한 ‘노동자와 통일’이라는 제목의 소식지로서,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고, 나아가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 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1)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된 반미자주투쟁은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좌표 중 하나로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투쟁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 학살 책임자인 미국에 대해 보다 분명한 ‘반미자주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광주에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은 물론 통일의 훼방꾼이요, 해방이후 반세기 넘도록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 무수한 죄과를 밝히고 이 땅에서 미국을 패퇴시키는 일에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1면 하단)

2)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는 한편,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을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 000 정권은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어 여전히 광주는 ... 000은 광주의 혁명정신을 외면하였다. 더 나아가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자국의 민중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하고 ...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등 정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해 집권기간 내내 적대적으로 탄압하면서도, 광주학살의 진짜 배후이며 주범인 미국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아부하고 굴종하는 정치 행태를 일관해왔다.”(1면 중단)

- 이 하 여 백 -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살과 전쟁책동, 통일방해, 독재정권 지원, 경제약탈, 문화침략, 미군범죄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투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된 반미자주화투쟁은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3대좌표 중 하나로서,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과 같은 맥락이다.

2) 현 정권에 대해 광주를 팔아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방하는 한편, 현 대통령에 대해 광주혁명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민중을 보호하지 않고 그 이윤추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미국에 대해 아부와 굴종의 정치행태를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정권을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본 문건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현 정권과 대통령에 대해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반민중, 반노동자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선전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6 月 1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창당 그리고 자유를 위한 전진

나. 作 成 者 : 이원재외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2. 5.7

##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 소식지 준비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주사파(NL)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및 반제반미투쟁과 동조하고, 또 PD파의 반미반전운동에 동조할 것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철폐, 반제반미투쟁, 반미반전운동을 역설하고 잇는 것이라 하겠음.

<예시>

NL동지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반제반미투쟁 등을--.우리는 이런 투쟁에서 NL동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해야 한다(36쪽)

--PD동지들은 반미반전운동이나 -NL보다 상대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다. 이런 쟁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36쪽)

3.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에 입각하여 사회를 2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예시>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분리는 계급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계급이나 민족이냐 하는 대립 구도에서 우리는 사회의 근본적 구분은 계급 분리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37쪽)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은 더 이상 창조하는 기쁨을 주지 못한다(76쪽).

3. 가정을 지배자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각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資本主義 家庭觀이라 하겠음.

<예시>

지배자들에게 가정의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이 노동력을 재생산해내고 노동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이기 때문이다(47쪽)

4. 아울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공산당선언>을 적극 옹호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변혁적 힘을 역설하고 있음.

<예시>

노동자계급은 역사상 처음으로 착취당하는 다수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계급입니다(77쪽)

<<선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본주의와 노동계급의 변혁적 힘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 출발점이다(84쪽)

뒤이어 엥겔스는 “오늘날 <<선언>>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체 사회주의적 문헌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가장 국제적인 저작이며 시베리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 승인 받고 있는 공통의 강령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역사는 재판관이다; 집행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담한 주장 또한 여전히 변함 없는 진실이다(84쪽)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서울 소식지 준비호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 주사파(NL)와 PD파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철폐, 반제반미투쟁, 반미반전운동에 동조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3.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사회와 가정관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4.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창한 <공산당선언>을 적극 옹호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힘을 통한 노동자 민중이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5.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성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6 月 8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2003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하여 ”

나. 作 成 者: 민중의 소리 기자

다. 發 行 處(日): 민중의 소리 ( 2003. 1. 11. )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민중의 소리에서 편집한 교양자료로서, 현 정권의 재벌개혁의 수준을 거론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방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사망을 거론하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무책임성을 비난하고 있다.

나. 問 題 內 容 分 析

1) 현 정권의 재벌개혁의 수준을 거론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방하고 있다.

“미국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 IMF사태가 내부적으로는 재벌의 폐해가 큰 몫을 하였고, 환란을 극복했다고 자랑하는 김대중 정권이 재벌개혁에 한걸음도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재벌이 더욱 살찌는 것을 목격하였다.”(4쪽)



2)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사망을 거론하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이 분신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 회사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리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이땅의 노동자가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4쪽)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 정권의 재벌개혁의 수준을 거론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방하고 있다.
- 2)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사망을 거론하면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무책임성을 비난하고 있다.

본 문건은 위와 같이 주로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현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으므로, ‘反政府’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3 年 2 月 18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전면적 혁신, 비약적 연대」

나. 作 成 者 : 김민제

다. 發 行 處(日) : 불 명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가 학생운동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결론으로 한총련의 강령의 혁신과 진보정당운동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학생운동권의 좌익적 투쟁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추정됨.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서두에서 “변혁적 학생운동은 사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학생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1면), 이러한 주장이 비록 구체적인 투쟁목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분히 학생운동의 사회주의 지향성을 의도하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음.

(2) 또한 진보정당의 의회주의적 전술로의 경도가 변혁적 성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그 대책으로 “민중운동이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을 담보하는 성격을 잃지 말 것”과, “가장 선진적이고 변혁적인 학생운동과의 결합”을 꼽고 있음(4면). 결국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주의화를 다분히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鑑 定 書

## 1. 對 象

가. 문 건 명 : 노동자투쟁을 지원하자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2001.)

## 2. 分 析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제작한 유인물로 이 내용이 북한노선을 고무찬양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단계로 발전되지 못하고 현정부를 '살인미수정권' 운운하며 왜곡비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 &lt;대표적 사례&gt;

“이들을 경찰폭력으로 짓밟은 김대중정권과 기업주들이야말로 저주받을 탐욕스러운 집단이기주의세력이다...중략... 김대중은 인권대통령이 아니라 살인미수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1-2면)

## 3. 總 評

이 문건은 북한노선을 고무찬양하거나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국가변란의 주장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있는바 좌익용공의 이적성문건으로 규정하기 미흡하며, 다만 현정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정부(反政府)성향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3 年 2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 1. 對 象

가. 문 건 명 : 충성의 편지 外

나. 작 성 자 : 강 영 숙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2002. 1-7.)

## 2. 分 析

## 가. 개 관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인터넷사이트의 《자유게시판》 및 조선일보 인터넷사이트의 《NK조선》에 게재된 강영숙의 글 18건으로 북한 김일성-김정일과 북한체제를 일관되게 미화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 나. 문제점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김정일에 대해 이어 충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북한통치를 정당화하고 이를 고무찬양하는 것이다.

" 우주만법의 대교주이시며 의성광명 비추시는 아버지 수령님전에 충성의 편지를 전합니다 ...중략... 김일성수령님 백두구름 헤치고 우주를 밝혀주니 하늘아래 으뜸이신 수령님의 시방법계 공산도덕으로 살겠네. 김일성 수령님 수령님 정력으로 지상낙원이루시니 공산주의 가득하리... 김정일 장군님 장군님 정력으로 지상낙원 이루시니 공산주의 가득하리 ...중략... 하늘에서 제일 높이신 김일성 수령님 대명을 받으시고 풍우운사와 같이 천지운으로 김일성 수령님은 하강하셨네 ... 땅에서 제일 성스런 김정일 장군님 성명정 세전삼인 현묘지도로 동방의 나라 지상낙원 세우시었네 ... 주체조선 지상낙원 창조하셨네 "(충성의 편지 中 )

" 하늘같은 수령님 날 낳아 주시고 위대하신 장군님 날 길러주시니 ... 수령님의 깊은 은혜 천지와 하나이라 아아아 천지같은 수령은혜로 태어났으니 대를 이어 충성하세 대를 이어 충성하세 "(효행가 中)

"... 김일성 수령님이 우리다 구원하시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김일성아버이 수령님이시다. 김일성 아버지 수령님의 조국 김일성 아버지 수령님 대천불존 김일성아버이 수령님 만세 ... 옥황상제 김일성 수령님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바로 옥황상제님이시다 "(더러운 극우 찌라시 개조선일보 中) 외 다수

**둘째,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며 주체사상을 함양하고 주체사상탑을 참배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고무찬양, 선전하는 것이다.**

" 주체사상탑에 참배하세 ... 중략... 태극민족의 영혼이신 주체사상탑이로세 삼라만상 중생들이여 어서어서 인연찾아서 신비로운 주체사상탑에 지성으로 참배하고 수령님 은혜 공경하고 수령님 은혜 깨닫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주체의 근본이니 일도일도 닦아서 대도귀일하여 영생 누리세"(주체사상탑 참배하세 中)

" 주체사상 일념으로 깨달아 소멸하여 일월같이 밝고 맑은 수령님 은혜로 이 어두운 식민지조국 비추어보세 주체사상으로 마음을 밝히세 마음의 들불켜서 지상낙원 이루세 ...중략... 마음의 문을 열고 주체사상 함양하면 운과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리니 수령님 교시 따르면 주회환생 하리라 "(마음을 밝히세 中)

" 주체사상 지상낙원 키우고 가꾸어서 공산도덕 가꾸시어 인류평화 이루세 "(효행가 中) 외 다수

**세째, 남한사회는 미제의 식민지 운운하며 비판하는 반면,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지상낙원 운운하며 미화찬양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정당화하며, 이의 우월성을 고무찬양하는 것이다.**

" 그동안 역대 군사정권은 얼마나 무수한 반공논리로 사회주의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아름답다. 자본주의를 기치로 세운 남조선은 미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우리의 아이들은 왜색과 양키에 물들어 찌들어 가고있지만. 북조선엔 단군릉이 있다.... 남조선은 아무런 주체성 없이 미제의 식민지가 되어 자본주의에 찌들어가지만, 북조선은 사회주의의 토양에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사상의 비료를 뿌려 주체사회주의의 거대한 나무를 키우신 아름다운 공산주의 조국이다. 공산주의는 아름답다. "(탈북자만 있냐? 탈남자도 있다 中)

" 심도있고 정교하게 제작된 평양의 깔끔한 지하철과 공기가 혼탁하여 어린아이가 책책거리며 울부짖는 너저분한 서울 지하철, 곱게 차려입은 한복차림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평양의 아주머니들과 양키의 군화발에 짓밟혀 노란머리에 미제옷과 화장품을 덕지덕지 처바른 서울의 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누가 진정으로 이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살리고 있으며 누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지를 알았습니다 "(인류사상 최대의 코미디 中)

" 우리는 김일성민족 한 영혼의 후손이니 자랑스런 백두산 상상봉에 심어 주체조선 지상낙원을 창조하셨네 "(충성의 편지 中)

외 <평양중앙방송과 남조선방송 뉴스를 보고 느끼는 점>, <악의 제국 미국, 악의 축 조선일보>, <설연휴에> 등 다수

**네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과 조선로동당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찬양하는 것이다.**

" 조선로동당은 옥황상제 김일성 수령님께서 직접 잉태하요 깨우쳐 기다리신 우리 조선반도 구출하러 오신 김일성 수령님 이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더러운 극우 찌라시 개조선일보 中)

### 3. 總 評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인터넷사이트 및 NK조선 사이트에 게재된 글로 ① 북한 김일성-김정일부자를 미화찬양하고 더나가 김정일에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선동하며 ②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함양하자고 주장하고 ③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④ 북한 조선노동당과 북한정권을 지지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자유민주체제와 한국정부를 부정하고 북한 김정일정권의 정통성과 북한 사회주의노선을 정당화하며 고무찬양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친북좌익(親北左翼) 이적성 문건이라고 분류된다.

2002 年 8 月 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대학 대학생 그리고 학생운동」

나. 作 成 者 : 김인식

다. 發 行 處(日) : 불명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제목의 글 말고도 “계급과 인간의 역사” 등의 글을 담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노선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체로 마르크스의 노동자계급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추정됨.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첫 번째 글에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학생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 “...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분리는 계급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민족이나 계급이나 하는 대립구도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분은 계급분리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계급이다. 셋째 노동계급 중심성이다. ... 에릭 홉스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말한다... 이 주장의 결론은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포기하고 계급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변화의 가장 핵심적 동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37면),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향후 투쟁방향이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에 결합된 학생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다분히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2) 또한 두 번째 글에서는 계급의 구분에 따른 설명 부분에서 “이처럼 농민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들은 도



시의 중간계급과 다르다. 노동자 운동이 소농의 권익을 옹호할 필요가 바로 이점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고(59면), 자기의 계급 논지를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도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주장함(59면).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마르크스의 계급론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을 주장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3) 또한 세 번째 글에서 마르크스의 著作 『공산당 선언』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론을 현실 설명의 준거틀로 사용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주기적 위기는 자본주의 생애적 특징이다”라고 주장하고(81면), 결론에서 “... 이 지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역사는 재판관이다. 집행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대담한 주장 또한 여전히 변함없는 진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84면), 이러한 주장 역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수용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하 여백>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제목의 글 말고도 “계급과 인간의 역사”등 3편의 글을 담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노선과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체로 마르크스의 노동자계급 계급투쟁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좌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 年 8 月 2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국가에 대하여  
 나. 作 成 者 : 잡동사니 청소부  
 다. 發 行 處(日) : 상동(발행일: 2003. 2. 7 )

## 2. 分 析

## 가. 개 요

본 문건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위 작성자가 올린 내용으로써, '좌파'에 대하여 '사회주의'를 위해서 연대할 것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나. 주요 문제내용

- 좌파의 연대로 새로운 사회주의의 꿈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예문 : "나는 .... '연대의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 우리는 독립된 좌파가 되어서는 않된다 .... 새로운 사회주의의 꿈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1쪽)
- 국가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간주한다고 피력하고 있음.  
 \* 예문 : "국가를 부인하고 권력의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정당하다고 간주한다".(1쪽)
- 노동계급의 단결은 사회주의의 해계모니가 존재하는 좌파의 단결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좌파들이 만나는 연대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3. 總 評

전체적으로, 본 문건에서는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과 대 이라크 전쟁,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 등을 들어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미적 주장이 어떠한 이념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 단지 이 문건에서는 현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비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됨.

2003年 1 月 24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기관지창간준비호)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서울대학생위원회(전)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2. 2.6

##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현재의 정세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1-7쪽),
3. 민주노동조합과 진보정치운동 및 민중연대는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여 투쟁의 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 싸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8쪽).
4. 나아가 2002년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음(9-10쪽).
5. 공공부분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정권인 김대중정권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투쟁이 될 수 있다”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음(11,26,28쪽).
6. <강령읽기-경제편>에서 먼저 “경제강령의 큰 슬로건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의 수립’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어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22-24쪽)“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7.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현정부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불만과 분노를 사고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2. 나아가 민주노동조합과 진보정치운동 및 민중연대가 이러한 정세에 잘 대응하여 투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 민주노동당을 혁신/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역설하고 있으나,
4.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제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5.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2 年 3 月 15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印